

배설(排泄)을 넘어 배려(配慮)로

노철우*

‘글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떠오르는 첫 번째 대답은 ‘생각을 표현하는 글자’라는 목적적 진리이다. 40자 남짓의 사소한 핸드폰 문자메시지에서부터, 각고의 노력으로 빚어낸 학위논문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글’은 필수불가결한 ‘소통의 통로’로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글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진정한 대답은 글쓴이가 어떤 고민을 갖고 글을 쓰는가에 대한 ‘글쓰기의 의의’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자기 생각을 고민 없이 마음껏 세상으로 ‘배설’(排泄)하는 글쓰기가 과연 의미 있는 창조물일 수 있을까. 즉, 글쓰기를 논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을 세상으로 옮기는 행위에 대한 ‘마음의 자세’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마침 필자는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글쓰기교실의 ‘우수 졸업논문 지원 사업’을 통해 우리 시대의 글쓰기가 가져야 하는 의의와 마음의 자세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었다.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기계항공공학부

지원 사업에서 필자의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재료공학을 전공하신 선생님과 인문·사회계열을 전공하신 선생님 두 분에 의해 논문의 구성과 논리 구조, 수치 처리 및 표 작성 방식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를 받았다. 이 분들과의 만남을 통해 필자는 글쓰기에 대한 바른 마음가짐이 어떠한지 알아야 하는지 알 수 있었다. 그 첫 번째 계명은 ‘배려’(配慮)이다.

이공계에서 작성하는 대부분의 글은 선행 이론을 전제(前提)하기 때문에, 문장 구성이 미려하고 규칙을 잘 지켜 서술한 글이어도, 타 분야의

사람들이 글을 읽을 때 ‘이해(理解)의 어긋남’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글을 쓸 때 ‘당연히 이렇게 이해할거야’라고 넘겨짚어 글을 쓰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다. 단어 한 개의 잘못된 이해가 글 전체의 의도를 곡해하였고, 지나친 용어의 단순화는 글 전체에 독자가 범접할 수 없는 뽕족한 철조망을 두르는 결과를 빚기도 했다. 이러한 경험은 지금까지 필자가 생각했던 ‘자기표현 수단으로서의 글’이라는 유아(幼兒)적인 정의를 넘어, 글의 존재론적 의미와 글쓰기의 방향을 다시 한 번 마음에 새길 수 있었던 기회였다.

‘글’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글은 궁극적으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글은 타인을 위한 ‘배려의 산물’이어야 한다. 자신의 생각을 알리는 유아적인 목적을 넘어 이제는 타인과 사회를 배려할 줄 아는 글쓰기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암울하다. 과연 우리는 얼마나 많은 ‘배려’를 글쓰기에 담아내고 있는가. 서로 자신이 옳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상대방과 이해의 접점을 찾으려는 노력은 게을리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해의 어긋남’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의사소통의 중요한 통로로 기능하는 글의 이해가 지속적으로 어긋나게 되면 단순한 오해로 그치지 않는다. 소통 전체의 간극이 벌어지면 결국에는 사회 각 분야에 ‘몰이해의 장벽’이 세워지게 마련이다. 필자는 이러한 몰이해의 연장선상에 이공계 위기의 원인이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한다. 경제 위기가 닥쳐오면 해고 1순위로 지목되고, 일하는 만큼 대우를 받지 못하는 분야로 낙인 찍혀버린 이공계의 현주소는 ‘배려’를 담아내지 못한 글쓰기로 인해 벌어진 타 분야와의 ‘소통의 간극’과 그로 인한 몰이해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각 학문 분과는 ‘프로페셔널과 효율’이라는 허구의 상(象)을 쫓으면서 ‘글’이라는 의사소통 수단을, 자신들의 영역을 공고케 하기 위한 하나의 진입 장벽으로 만들어왔다. 고인 물은 썩는다는 격언을 생각해본다. 타 분야와의 소통을 막는 진입 장벽은 결국 허우적

대며 씹어가는 물을 마셔대는 안타까운 우와(愚蛙)로의 사장(死藏)을 초래할 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배려의 마음가짐'을 바탕으로 한 글쓰기가, 작계는 독자의 곡해를 막고 수월한 이해를 돕는 좋은 글의 지침이 되고, 크계는 타인을 위한 배려의 글쓰기로부터 시작되는 교류와 상생의 시대적 조류로써, 그동안 사회 각 분야를 가로막고 있던 소통의 장벽과 뽕족한 철조망을 걷어내기를 소망한다. 